

예수님은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던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몹시 큰 심하며 “나는 아니지요?” 하고 물었지만, 예수님을 팔게 될 당사자 유다는 그저 ‘대답’하는 수준으로 반응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르지만, 유다는 ‘랍비여’라는 호칭으로 예수님을 객관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유다에게 있어 예수님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선생’인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주님’(master)입니까, ‘선생’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엄중한 명령으로 받지만, ‘선생’의 말은 취사선택의 대상이 됩니다. 주님을 배신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지만, 선생을 바꾸는 것은 선택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이나 가룟 유다나 심각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걱정하는 제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아니지요?”(Surely not I, Lord?, NIV)라고 묻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일어날 일들로 보건대 그들은 근심과 두려움으로 이렇게 물어야만 했습니다. “혹시 제가 그 사람입니까?”

제자들은 왜 자신은 아니라고 확신했을까요? 어쩌면 확신이 아니라 불안함을 감추려는 의도였는지도 모릅니다. 그간의 성품이나 행적을 떠올리며 가능성 있는 범인을 추리고, 애써 나일 가능성은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죄는 그의 죄이며, 나의 죄는 나의 죄입니다. 결국, 범인은 가룟 유다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쳤습니다. “네가 말하였도다”(마 26:25). 예수님의 대답은 가룟 유다에게뿐 아니라 ‘나는 아니지요?’라고 물었던 모든 제자를 향한 답변 아니었을까요?